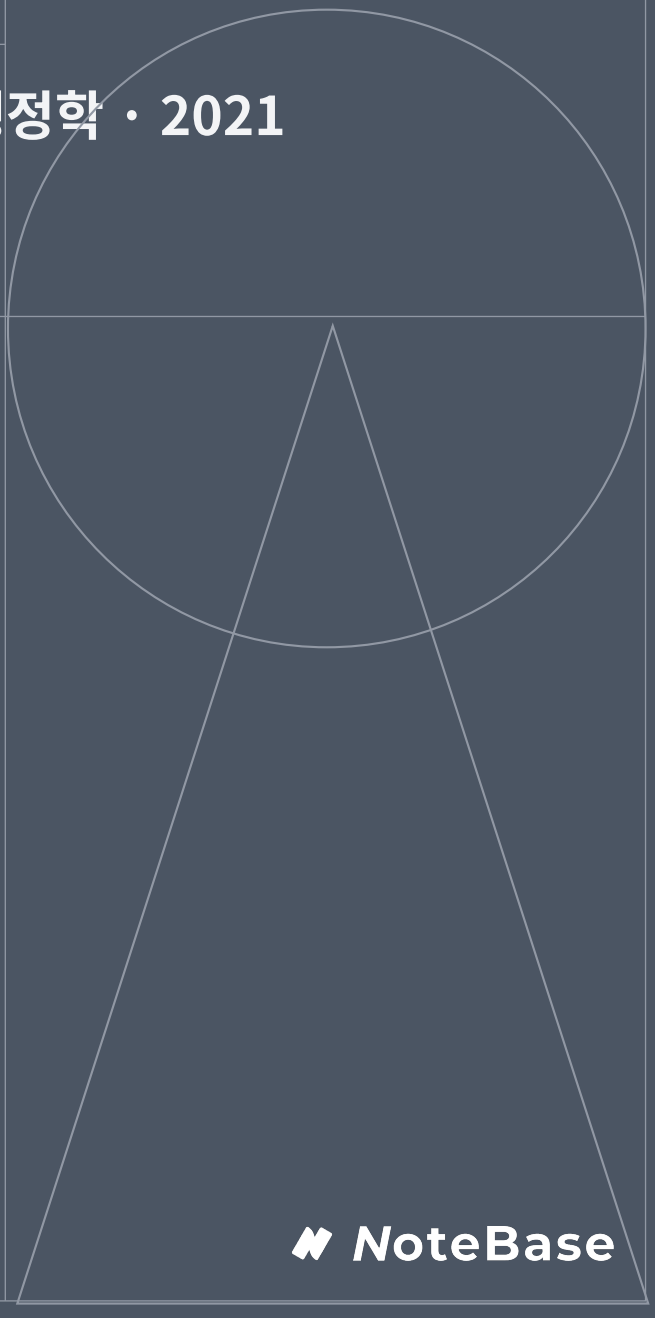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보건행정학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보건행정학 · 2021

공무원/서울시/7급 · 보건행정학 · 2021

문 1. <보기>에서 설명하는 학자는?

<보기>
독일의 병리학자로 슐레지엔 지역에서 유행한 발진티푸스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질병의 원인은 세균에 있지만 질병의 확산과 개인의 감수성은 위생행정의 미비, 주거 환경, 작업 환경, 식생활 환경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과 봉건적 정치체계 등에 대한 혁명적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① L. Pasteur(파스퇴르)

② R. Virchow(비르효)

③ J. Graunt(그라운트)

④ G. Fracastoro(프라카스토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슐레지엔 발진티푸스 연구,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사회개혁 필요성을 단서로 사회의학을 주장한 비르효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L. Pasteur: 세균설의 확립과 백신 연구로 감염병의 미생물 원인을 밝힌 학자이다.
R. Virchow: 질병의 원인과 확산을 사회경제적 환경, 빈곤, 정치체계와 연결한 사회의학의 대표 학자이다.
J. Graunt: 사망표를 분석해 인구와 사망의 규칙성을 파악한 보건통계의 선구자이다.
G. Fracastoro: 질병이 보이지 않는 종자에 의해 접촉 등으로 전파된다고 본 전염설의 대표 학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파스퇴르는 질병의 미생물학적 원인을 밝힌 세균설의 대표자이지만, 제시문처럼 빈곤과 정치체계를 질병 확산의 핵심 원인으로 본 사회의학자는 아니다. 틀린 표현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혁명적 사회개혁의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파스퇴르는 세균의 역할을 규명한 학자이다.
② O: 비르효는 슐레지엔 발진티푸스 조사에서 질병이 세균만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 주거, 노동, 영양, 정치제도와 연결된다고 보았다. 제시문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과 사회개혁 필요성은 비르효의 사회의학 관점과 일치한다.
③ X: 그라운트는 사망통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인물로, 인구집단의 출생·사망 자료를 정리한 점이 핵심이다. 틀린 표현은 사회개혁을 통해 질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그라운트는 보건통계와 인구통계의 기초를 마련한 학자이다.
④ X: 프라카스토로는 전염병이 접촉이나 매개물로 전파된다고 본 전염설의 대표 학자이다. 틀린 표현은 슐레지엔 발진티푸스 보고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비판의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프라카스토로는 전염 경로를 설명한 학자이다.

오답 포인트

지문 앞부분에 세균이 언급되어 파스퇴르로 끌리기 쉽지만, 결정적 단서는 위생행정의 미비, 주거·작업·식생활 환경, 경제적 불평등, 사회개혁 필요성이다. 세균설이 아니라 사회의학의 언어가 나오면 비르효를 떠올려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 매칭 문제에서 지문에 질병의 사회적 결정요인, 빈곤, 정치체계, 사회개혁이 함께 나오면 비르효를 우선 판단한다. 반대로 세균 자체의 발견이면 파스퇴르, 사망통계면 그라운트, 전염 경로 설명이면 프라카스토로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비르효=사회의학, 파스퇴르=세균설, 그라운트=사망통계, 프라카스토로=전염설이다.

NoteBase

문 2. 보건행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다.

② 국가가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직접 개입하고 간섭하는 봉사행정이다.

③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진다.

④ 과학행정인 동시에 기술행정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건행정의 공공성, 전문성, 주민참여의 관계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건행정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와 공공조직이 수행하는 행정이다.
공공성·사회성은 개인 이익보다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리를 우선하는 성격을 뜻한다.
전문성은 보건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뜻이지만, 그것이 주민참여를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보건행정은 국민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과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다.
② O: 보건행정은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정이므로 봉사행정의 성격을 가진다.
③ X: 틀린 부분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진다'이다. 보건행정은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보건사업의 계획과 수행에서는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협조도 중요하다. 올바르게는 '전문성이 요구되면서도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중시한다'가 된다.
④ O: 보건행정은 의학, 역학, 통계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실제 사업 수행에는 기술과 방법이 필요하므로 과학행정인 동시에 기술행정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전문성'을 '주민참여의 배제'로 잘못 연결한 선지이다. 보건행정은 전문가만의 폐쇄적 행정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참여적 성격도 함께 가진다는 점에서 함정이 형성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건행정의 특성을 묻는 문제에서는 공공성, 국가의 적극 개입, 과학성·기술성, 지역사회 참여를 함께 떠올리면 된다. 전문성이 나온다고 해서 주민참여가 줄어든다고 연결하면 오답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보건행정은 공공적이고 전문적이면서도 주민참여를 중시하는 행정이다.

NoteBase

문 3. 보건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상이용률 = 퇴원자수평균가동병상수 × 1,000

② 치명률 =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어떤 질병에 걸린 환자수 × 100

③ 유병률 = 현재 이환자수시점(기간)의 인구 × 1,000

④ 성비 = 남자수여자수 × 1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보건지표별 분자·분모와 배수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조건 정리

보건지표는 무엇을 분자로 세고 무엇을 분모로 두는지가 핵심이다.
병상이용률은 병상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보는 지표이고, 병상회전율은 병상 하나가 일정 기간 몇 명의 퇴원환자를 처리했는지를 보는 지표이다.

사용할 공식

병상이용률은 $\frac{P}{B \times T} \times 100$ 형태이다. 여기서 P는 기간 중 재원환자 연인원, B는 평균가동병상수, T는 기간일수이다.
병상회전율은 $\frac{D}{B}$ 이고, 여기서 D는 퇴원자수이다.
퇴원자수가 분자에 오면 이용률이 아니라 회전율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제시식은 퇴원자수를 평균가동병상수로 나눈 구조이므로 병상이용률이 아니라 병상회전율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병상이용률'이고, 올바르게는 '병상회전율은 $\frac{D}{B}$ 이다' 또는 '병상이용률은 $\frac{P}{B \times T} \times 100$ 형태이다'라고 본다.
② O. 치명률은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 중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이므로 사망자수를 환자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는 설명이 맞다.
③ O. 유병률은 특정 시점 또는 기간에 현재 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수를 해당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제시식의 방향이 맞다.
④ O. 성비는 보통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 수를 뜻하므로 남자수/여자수 × 100이라는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병상이용률과 병상회전율을 함께 외우지 않으면 퇴원자수라는 단어만 보고 ①을 맞는 식처럼 보기 쉽다.
이용률은 병상이 찬 정도이고, 회전율은 병상이 몇 번 돌았는지라는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건지표 문제는 먼저 분자가 무엇인지 본다. 퇴원자수가 분자이면 병상회전율을 의심하고, 현재 이환자수가 분자이면 유병률을, 사망자수가 환자수에 대비되면 치명률을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이용률은 병상이 얼마나 찼는지이고, 회전율은 병상이 몇 번 돌았는지이다.

NoteBase

문 4. <보기>에서 설명하는 훈련방법은?

<보기>
• 피훈련자가 책임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해당 업무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관으로부터 훈련받는 방법이다.
• 실제적 훈련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하다.

① 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
② 연기기법(Role playing)
③ 사례연구(Case study)
④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상관의 지도를 받으며 능력을 높이는 현장훈련(OJT)의 정의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현장훈련(OJT)은 피훈련자가 실제 맡은 일을 수행하면서 상관이나 선임자의 지도를 받아 직무능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연기기법은 가상 상황을 역할로 재현하여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을 연습하는 방법이다.
사례연구는 실제 또는 가상의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해결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방법이다.
감수성 훈련은 집단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이해와 대인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보기의 핵심 표현은 '책임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상관으로부터 훈련'이다. 이는 실제 작업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배우는 현장훈련(OJT)의 정의와 일치한다.
② X: 연기기법은 직무 현장을 그대로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상황을 설정해 역할을 맡아 보는 훈련이다. 틀린 표현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관에게 훈련받는다는 점에 연기기법을 대응시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대인관계 상황을 모의 재현하여 행동을 연습하는 방법이 연기기법이다.
③ X: 사례연구는 사례를 읽고 분석하며 토의하는 방법이지, 피훈련자가 현업 책임을 수행하면서 배우는 방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실제 직무수행과 상관의 현장지도를 사례연구의 특징으로 보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문제 상황의 분석과 판단력 향상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 사례연구이다.
④ X: 감수성 훈련은 집단 내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인식과 인간관계 감수성을 높이는 훈련이다. 틀린 표현은 상관의 지도 아래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을 감수성 훈련으로 보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대인감수성과 자기이해 증진이 중심이면 감수성 훈련이다.

오답 포인트

보기 끝부분의 '인간관계를 개선'만 보면 연기기법이나 감수성 훈련으로 흔들리기 쉽다. 그러나 정답을 가르는 결정어는 '책임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와 '상관으로부터'이므로 실제 현장성과 상급자 지도가 보이면 현장훈련으로 판단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훈련방법 문제는 먼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지, 모의 상황인지, 사례 토의인지, 집단 감수성 향상인지 구분하면 된다. 실제 직무 수행 중 상관이나 선임자의 지도를 받는 구조이면 현장훈련(OJT)이다.

암기 포인트

실제 업무+상관 지도=현장훈련(OJT), 역할 연습=연기기법, 사례 분석=사례연구, 감수성 향상=감수성 훈련이다.

NoteBase

문 5. 연공급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직에 대한 귀속의식이 높다.

② 직무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하다.

③ 직무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임금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연공급과 직무급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연공급은 근속연수와 연령 등 사람의 속성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이다. 키워드는 연공서열, 생활보장, 장기근속 유도이다.
직무급은 직무의 가치와 난이도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이다. 키워드는 직무평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합리적 인사관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연공급은 근속과 연공을 중시하므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조직에 대한 귀속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② X: 틀린 부분은 "직무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이다. 이는 직무급의 장점이며, 연공급은 사람 중심의 연공서열 관리에 가깝다.
③ X: 틀린 부분은 "직무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이다. 객관적 직무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은 직무급이다. 연공급은 개인의 연공요소 비중이 커서 직무평가의 객관성과는 거리가 있다.
④ X: 틀린 부분은 "임금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이다. 이는 직무급에서 기대되는 장점이다. 연공급은 연공이 쌓일수록 임금이 상승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연공급과 직무급의 장점을 서로 바꾸어 넣으면 쉽게 흔들린다. 이 문항은 ②, ③, ④에 직무급의 특징을 배치하고 ①에만 연공급의 특징을 넣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금 결정 기준이 사람의 연공인지, 직무의 가치인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근속, 연령, 장기근속 유도는 연공급이고, 직무평가, 합리적 인사관리, 임금관리 효율성은 직무급으로 판단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연공급은 사람 기준, 직무급은 일 기준이다.

NoteBase

문 6.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대성, 수단성, 유의성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높을 때 동기 부여 수준이 가장 높다.

② 수단성은 기대하는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③ 기대성은 자신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다는 기대이다.

④ 기대성의 대표적인 예로는 인센티브, 승진 등이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기대성, 수단성, 유의성의 뜻과 연결 방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대성은 노력을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이다. 수단성은 성과를 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다. 유의성은 그 보상 결과가 개인에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지를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브룸은 동기 수준이 기대성, 수단성, 유의성이 함께 작동할 때 커진다고 본다. 세 요소가 모두 높을수록 동기 부여 수준이 가장 높아진다.
② O: 수단성은 성과와 보상의 연결에 대한 믿음이다. 기대하는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 설명이므로 옳다.
③ O: 기대성은 노력과 성과의 연결에 대한 기대이다. 자신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 달성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설명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기대성의 대표적인 예"라는 표현이다. 인센티브와 승진은 보상 결과의 예이므로 유의성과 관련된다. 올바르게는 기대성은 "노력하면 목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와 같은 노력→성과의 기대를 뜻한다.

오답 포인트

기대성, 수단성, 유의성은 모두 동기와 관련된 말이라 서로 바꿔 쓰기 쉽다. 특히 인센티브, 승진처럼 동기를 높이는 요소를 보면 기대성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이는 보상 자체 또는 그 보상의 매력과 관련되므로 유의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연결 방향을 본다. 노력→성과이면 기대성, 성과→보상이면 수단성, 보상 자체의 매력과 가치이면 유의성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기대성은 할 수 있나, 수단성은 주나, 유의성은 갖고 싶나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7. 그린리프(Greenleaf)가 제시한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며 종업원, 고객 및 커뮤니티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은?

① 거래적 리더십
② 변혁적 리더십
③ 전략적 리더십
④ 서번트 리더십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Greenleaf가 제시한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 키워드인 봉사, 구성원 우선, 고객·커뮤니티 중시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Greenleaf: 서번트 리더십 — 리더는 먼저 봉사하는 사람이며 종업원, 고객, 커뮤니티의 욕구 충족과 성장을 우선한다.
거래적 리더십: 보상과 성과의 교환관계로 구성원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변혁적 리더십: 비전 제시와 동기부여를 통해 구성원의 가치와 조직 변화를 이끄는 방식이다.
전략적 리더십: 조직의 장기 방향과 환경 대응, 경쟁우위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거래적 리더십은 성과에 따른 보상과 교환관계가 핵심이다. 이 문항의 핵심인 타인을 위한 봉사와 구성원의 욕구 충족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거래적 리더십'이며, 올바르게는 '서번트 리더십'이다.
② X: 변혁적 리더십은 비전과 카리스마, 동기부여를 통해 구성원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종업원·고객·커뮤니티를 우선하는 봉사 중심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변혁적 리더십'이며, 올바르게는 '서번트 리더십'이다.
③ X: 전략적 리더십은 조직의 외부환경 대응과 장기적 방향 설정이 중심이다. 봉사와 욕구 만족을 통해 타인을 우선하는 설명과는 다른 개념이다. 틀린 표현은 '전략적 리더십'이며, 올바르게는 '서번트 리더십'이다.
④ O: 서번트 리더십은 Greenleaf가 대표적으로 제시한 리더십으로, 리더가 봉사자 역할을 하며 종업원, 고객, 커뮤니티를 우선하고 그들의 성장과 욕구 충족에 헌신한다.

오답 포인트

변혁적 리더십도 구성원의 변화와 성장을 말하므로 ②와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문항의 결정적 표현은 '타인을 위한 봉사', '종업원·고객·커뮤니티 우선'이므로 봉사자 리더를 뜻하는 서번트 리더십으로 판단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더십 문항에서 봉사, 배려, 구성원 우선, 고객과 공동체 중시가 함께 나오면 Greenleaf의 서번트 리더십을 먼저 연결한다. 보상·교환이면 거래적, 비전·변화면 변혁적, 장기 방향·환경 대응이면 전략적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Greenleaf = 서번트 리더십 = 봉사 우선, 구성원·고객·커뮤니티 우선이다.

NoteBase

문 8. 로위(T. Lowi)가 분류한 정책 유형 중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의 예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인 퇴직연금 정책
② 벤처기업 창업지원금
③ 공직자 보수 책정
④ 정부의 새로운 기구 신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로위의 정책유형 중 구성정책과 분배정책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구성정책은 정부조직의 구조와 운영규칙, 공직체계의 지위·보수·연금처럼 정치·행정체제의 틀을 정하는 정책이다. 키워드는 정부기구, 공직자, 권한배분이다.
분배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보조금·지원금·혜택을 배분하는 정책이다. 키워드는 지원금, 보조금, 수혜배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군인 퇴직연금 정책은 국가조직의 구성원인 군인의 지위와 후생체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부의 인사·조직 운영 규칙과 연결되는 구성정책의 예로 볼 수 있다.

② X
벤처기업 창업지원금은 특정 경제주체에게 재정적 혜택을 배분하는 정책이므로 구성정책의 예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구성정책의 예"이다.
올바르게는 "벤처기업 창업지원금은 분배정책의 예"이다.

③ O
공직자 보수 책정은 공직체계의 운영원리와 인사질서를 정하는 내용이므로 정부 내부의 운영규칙을 다루는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④ O
정부의 새로운 기구 신설은 정부조직의 구조 자체를 만들거나 바꾸는 것이므로 구성정책의 전형적인 예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정부가 돈을 쓰는 정책이라고 해서 모두 구성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처럼 외부 대상에게 지원금을 나누어 주는 정책은 분배정책이고, 공직자 보수나 정부기구 신설처럼 정부의 틀과 운영규칙을 정하는 정책이 구성정책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정부조직, 공직자, 권한구조, 운영규칙을 다루면 구성정책으로 본다. 반대로 특정 기업이나 집단에 보조금·지원금을 주는 내용이면 분배정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구성정책은 정부의 틀, 분배정책은 지원금 배분이다.

NoteBase

문 9. 도나베디언(Donabedian)이 구분한 보건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① 기술적 영역

② 대인관계 영역

③ 환자중심성

④ 편의시설의 쾌적성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도나베디언이 제시한 보건의료의 질 구성요소와 이후 등장한 다른 질 평가 개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도나베디언의 보건의료 질 구성요소는 기술적 영역, 대인관계 영역, 편의성·쾌적성과 같은 편의시설 영역으로 나뉜다.
기술적 영역은 의학적으로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는지를 뜻하고, 대인관계 영역은 의료인과 환자의 의사소통·태도를 뜻하며, 편의시설의 쾌적성은 진료환경의 안락함과 편리성을 뜻한다.
환자중심성은 의료 질 논의에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도나베디언이 구분한 고전적 3요소 자체로 보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술적 영역은 진단과 치료가 전문적으로 정확하고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를 보는 요소이므로 도나베디언의 질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② O
대인관계 영역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 존중, 태도, 신뢰관계를 다루므로 도나베디언의 질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환자중심성'이다. 환자중심성은 현대 의료 질 평가에서 중시되는 개념이지만 도나베디언이 구분한 질 구성요소 3요소로 보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기술적 영역, 대인관계 영역, 편의시설의 쾌적성이 도나베디언의 질 구성요소이다.

④ O
편의시설의 쾌적성은 시설, 환경, 안락함, 편의성 등 이른바 amenity에 해당하므로 도나베디언의 질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환자중심성은 의료 질과 관련된 매우 익숙한 용어이므로 도나베디언의 구성요소와 자동으로 연결하기 쉽다. 이 문항은 '의료 질의 일반 원칙'과 '도나베디언의 분류 항목'을 의도적으로 섞어 혼동을 유도한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 이름이 붙은 질 개념 문제는 먼저 그 학자가 제시한 분류표를 떠올린다. 도나베디언이면 기술적 영역, 대인관계 영역, 편의시설의 쾌적성이라는 고전적 3요소인지부터 확인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도나베디언의 질 3요소는 기술, 관계, 편의이다.

NoteBase

문 10. <보기>의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정책결정과정의 단계는?

<보기>
지난 1년간 만 0세부터 6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지급대상, 수혜 범위 등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대립되었으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입원서비스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 해주기로 하였다.

① 정책의제형성
② 정책결정
③ 정책집행
④ 정책평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정책과정에서 여러 대안을 검토한 뒤 하나의 대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단계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지난 1년간 영유아 본인부담금 지원정책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지급대상과 수혜범위에 관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대립되었다.
밑줄 부분에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입원서비스에 한하여 지원하기로 최종 정하였다.

핵심 개념

정책결정은 여러 정책대안 중 하나를 공식적으로 선택하고 채택하는 단계이다.
정책의제형성은 정책문제가 공적 논의 대상으로 채택되는 단계이고, 정책집행은 채택된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단계이며, 정책평가는 시행 결과를 사후에 판단하는 단계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정했는지 여부이다.
밑줄 부분은 대안을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원대상, 지원한도, 서비스 범위를 확정하고 있으므로 정책결정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정책의제형성은 사회문제가 정부의 논의 대상으로 올라가는 단계이다. 이 사례의 밑줄은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장면이 아니라 구체적 지원내용을 확정한 장면이다. 틀린 표현은 '정책의제형성'이고, 올바르게는 '정책결정'이다.
② O. 여러 대안이 대립한 뒤 '전 영유아', '연간 최대 100만원', '입원서비스에 한함'으로 하나의 대안을 최종 채택하였으므로 정책결정이 맞다.
③ X. 정책집행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실제 행정현장에서 시행하는 단계이다. 밑줄은 집행 개시나 급여 지급 실적이 아니라 지원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다. 틀린 표현은 '정책집행'이고, 올바르게는 '정책결정'이다.
④ X. 정책평가는 시행된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사후에 점검하는 단계이다. 밑줄은 결과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지원안을 확정한 것이다. 틀린 표현은 '정책평가'이고, 올바르게는 '정책결정'이다.

오답 포인트

보기 앞부분에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대립되었다'는 표현이 있어 정책형성 단계로 끌리기 쉽다. 그러나 문제는 밑줄 친 부분만 묻고 있고, 밑줄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최종 선택한 장면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책과정 문제는 문장 속 동사를 먼저 본다. '제시되었다'는 형성 쪽 단서이고, '정하기로 하였다'와 '채택하였다'는 결정 단서이며, '시행하였다'는 집행 단서이고, '성과를 분석하였다'는 평가 단서이다.

암기 포인트

대안 제시=정책형성, 대안 확정=정책결정, 실제 시행=정책집행, 결과 분석=정책평가이다.

NoteBase

문 1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소장이 실시할 수 있는 건강증진 사업은?

① 영양교육사업

② 국민 보건교육 성과 평가

③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④ 국민영양조사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소장이 실시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법정 항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보건소장의 지역보건 실무사업과 중앙 차원의 평가·조사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높이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이 수행할 수 있는 예방·관리·상담 사업이다.

핵심 구분

보건소장 사업으로 법에 열거된 것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신체활동장려, 구강건강의 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등이다.
반면 국민 보건교육의 성과 평가나 국민영양조사 같은 전국 단위 평가·조사는 중앙기관의 권한이다.
또한 법문상 사업명은 '영양교육사업'이 아니라 '영양관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영양 관련 사업은 가능하지만 법문상 열거된 명칭은 '영양관리'이다.
틀린 표현: 영양교육사업
올바른 표현: 영양관리

② X
국민 보건교육의 성과 평가는 보건소장 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사항이다.
틀린 표현: 국민 보건교육 성과 평가
올바른 표현: 보건소장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할 수 있다.

③ O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보건소장이 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으로 직접 열거되어 있다.

④ X
국민영양조사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조사이지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건강증진사업이 아니다.
틀린 표현: 국민영양조사
올바른 표현: 국민영양조사는 중앙기관이 실시하는 조사이고, 보건소장은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보건소장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국가가 전국 단위로 평가·조사하는 업무'를 섞어서 본 경우가 많다. 특히 영양교육이라는 익숙한 표현 때문에 법정 명칭인 영양관리를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건소장 사업을 묻는 문제는 먼저 지역주민 대상의 직접 서비스인지, 중앙기관이 하는 평가·전국조사인지부터 구분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다음 법문상 열거된 사업명인지까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보건소장은 지역 실무사업, 중앙기관은 성과평가·전국조사이다.

NoteBase

문 12. <보기>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개념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조직 내에서 분업의 원리에 따라 일을 세분화하여 담당자에게 전담하도록 할당하거나 배분하는 것을 (가)라고 하며, 한 사람의 상관이 몇 사람의 부하를 직접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을 (나)(이)라고 한다.

① (가): 전문화, (나): 통솔범위
② (가): 부문화, (나): 조정
③ (가): 전문화, (나): 명령통일
④ (가): 부문화, (나): 계층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직구조의 기본 개념인 전문화와 통솔범위를 정의에 맞게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문화: 분업의 원리에 따라 일을 세분화하고 각 담당자에게 특정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키워드는 업무의 세분과 전담이다.
통솔범위: 한 명의 상관이 직접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뜻한다. 키워드는 감독 가능한 부하의 수이다.
부문화: 비슷한 업무를 기준에 따라 묶어 부서로 편성하는 것이다.
조정: 분화된 활동들이 조직 목표에 맞게 연결되도록 맞추는 것이다.
명령통일: 한 부하는 한 상관에게서만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계층제: 권한과 책임이 상하 단계로 배열된 조직의 수직적 구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의 설명은 일을 세분화해 담당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전문화에 해당한다. (나)의 설명은 한 상관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수를 뜻하므로 통솔범위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가)의 "부문화"와 (나)의 "조정"이다. (가)는 업무를 부서로 묶는 부문화가 아니라 업무를 잘게 나누어 맡기는 전문화이다. (나)는 활동을 맞추는 조정이 아니라 상관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부하 수를 뜻하는 통솔범위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나)의 "명령통일"이다. (가)의 전문화는 맞지만, (나)는 한 부하가 한 상관에게만 지시를 받는 명령통일이 아니라 한 상관이 몇 명을 감독할 수 있는지를 뜻하는 통솔범위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가)의 "부문화"와 (나)의 "계층제"이다. (가)는 부서 편성이 아니라 업무 세분과 전담을 뜻하는 전문화이다. (나)는 상하 단계의 구조인 계층제가 아니라 감독 가능한 부하 수를 뜻하는 통솔범위이다.

오답 포인트

전문화와 부문화는 모두 조직구조 개념이라 자주 혼동된다. 이 문항은 "일을 세분화하여 담당자에게 배분"이라는 표현을 보고 업무 나눔인지, 부서 묶음인지 구별해야 한다. 또 통솔범위는 감독 가능한 인원 수이고, 명령통일은 지시 계통의 수라는 점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업무를 잘게 나누어 맡긴다"는 표현이 나오면 전문화를 먼저 떠올리고, "상관 1명이 직접 관리하는 부하 수"를 묻는다면 통솔범위로 판단한다. 반대로 "부서로 묶는다"는 부문화, "한 사람에게만 지시받는다"는 명령통일, "상하 단계"는 계층제로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전문화는 일의 세분, 통솔범위는 사람 수의 감독이다.

NoteBase

문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는?

① 보건복지부장관

② 질병관리청장

③ 구청장

④ 보건소장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지정 권한 주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법이 권한 주체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안에 보건소장이 포함되는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환자 등을 격리·치료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기 시 추가로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핵심 구분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이나 격리소·요양소·진료소 설치·운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기관의 장이지만 이 조문의 설치 권한 주체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 주체이다.

② O
질병관리청장도 법이 직접 열거한 설치·지정 권한 주체이므로 옳다.

③ O
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 포함되므로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X
보건소장은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권한 주체로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보건소장
올바른 표현: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오답 포인트

보건소장이 현장 방역 실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법정 설치 권한까지 가진다고 착각하기 쉽다. 이 문제는 실무 담당자와 조문에 열거된 권한 주체를 구별하는지를 묻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감염병예방법에서 권한 주체를 묻는 문제는 먼저 조문이 직접 열거한 기관인지 확인하면 된다. 실무를 맡는 기관장이라도 조문에 없으면 권한 주체로 보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위기 시 설치 권한은 장관·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까지이고 보건소장은 아니다.

NoteBase

문 14. 앤더슨(Anderson)의 의료이용 모형 중 가능성 요인(enabling facto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질병과 보건의료에 대한 태도

② 소득

③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④ 의료보험 가입 여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앤더슨의 의료이용 모형에서 성향요인, 가능성 요인, 필요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성향요인은 의료이용 전에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신념, 태도 같은 이용 성향이다. 가능성 요인은 실제 의료이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막는 자원과 접근조건으로 소득, 의료보험, 의료기관 접근성 등이 해당한다. 필요요인은 본인이 느끼는 질병 정도나 전문가가 평가한 건강상 필요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질병과 보건의료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건강신념과 이용 성향에 관한 내용이므로 가능성 요인이 아니라 성향요인이다. 틀린 표현은 '가용성 요인'이다. 올바르게는 '성향요인에 해당한다'이다.
② O. 소득은 진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므로 의료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가능성 요인이다.
③ O. 의료기관까지의 거리는 물리적 접근성을 뜻하므로 의료이용의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는 가능성 요인이다.
④ O. 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의료비 부담과 이용 가능성을 좌우하는 제도적 자원이므로 가능성 요인이다.

오답 포인트

성향요인과 가능성 요인을 모두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만 외우면 ①과 ②, ④를 같은 범주로 착각하기 쉽다. 태도, 신념, 가치관은 성향요인이고, 돈·보험·거리처럼 실제 이용 여건을 만드는 것은 가능성 요인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사람의 생각·신념·태도를 말하면 성향요인으로 보고, 돈·보험·거리·교통·의료자원처럼 실제 이용 여건을 말하면 가능성 요인으로 판단한다. 아프다고 느끼거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상태는 필요요인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태도는 성향, 돈과 보험과 거리는 가능성, 아픔은 필요이다.

NoteBase

문 15. 마이어스(Myers)의 양질의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접근성 : 언제 어디라도 필요 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② 질적 적정성 : 최신의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③ 지속성 : 의료인의 전문적인 능력은 치료와 예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④ 효율성 : 조기진단을 강조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마이어스의 양질의 의료 구성요소인 접근성, 질적 적정성, 지속성, 효율성의 개념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접근성은 필요할 때 시간적, 지리적, 경제적 장벽 없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키워드는 이용 가능성이다.
질적 적정성은 최신 지식과 기술, 윤리성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키워드는 의료의 내용과 수준이다.
지속성은 의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예방, 치료, 재활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기지 않게 이어지는 것이다. 키워드는 연속적 관리이다.
효율성은 최소한의 비용과 자원으로 최대한의 건강효과를 얻도록 의료를 운영하는 것이다. 키워드는 자원 대비 성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접근성은 환자가 필요할 때 필요한 의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선지의 "언제 어디라도 필요 시"는 접근성의 핵심인 적시성과 이용 가능성을 설명하므로 타당하다.

② O
질적 적정성은 의료가 단지 최신 기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타당성과 윤리성을 함께 갖추는 것을 뜻한다. 선지의 설명은 질적 적정성의 의미와 부합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의료인의 전문적인 능력은 치료와 예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라는 표현이다. 이는 지속성의 설명이 아니라 의료의 질이나 전문성에 가까운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지속성은 환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방, 치료, 재활 서비스를 끊기지 않고 연계하여 받는 것을 뜻한다.

④ O
효율성은 같은 자원으로 더 큰 효과를 얻거나 같은 효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개념이다. 조기진단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려는 설명은 효율성의 취지와 맞는다.

오답 포인트

지속성을 의료인의 능력이나 의료 수준으로 오해하면 ③에 흔들리기 쉽다. 지속성은 누가 더 유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관리가 시간적으로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가를 묻는 개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어가 이용 가능성이면 접근성, 의료 수준과 윤리성이면 질적 적정성, 시간적 연계면 지속성, 비용 대비 효과면 효율성으로 대응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접근성은 받을 수 있는가, 질적 적정성은 제대로 하는가, 지속성은 끊기지 않는가, 효율성은 적게 들이고 크게 얻는가이다.

NoteBase

문 16.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운영할 수 없는 병원은?

① 종합병원

② 정신병원

③ 치과병원

④ 병원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가 아니라 법에서 열거한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만 허용된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으로 나뉘는 의료기관의 큰 범주이다.
추가 운영 = 본래의 기관 유형과 다른 진료과목을 법이 특별히 허용한 범위에서 더 두는 것이다.

핵심 구분

문항의 기준이 되는 의료법상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정신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기는 하지만 이 허용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 운영 대상이 아니다.
즉 병원급이라고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에 적힌 기관만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종합병원은 법이 명시한 허용 대상이다.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운영할 수 없는 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X
정신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지만 해당 규정에서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운영을 허용한 기관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정신병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정신병원은 이 문항 기준의 의료법상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운영할 수 없는 병원이다.

③ O
치과병원은 법이 명시한 허용 대상이다. 따라서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④ O
병원은 허용 대상에 직접 포함된다. 따라서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넓게 외워 두고 '병원급이면 다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제는 병원급 전체가 아니라 법이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만 따로 열거했다는 점을 묻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료법 문제에서 허용 대상을 묻으면 먼저 조문이 열거형인지 확인한다. 열거형이면 포함된 기관만 가능하고, 비슷한 다른 기관은 병원급이라도 제외된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한의과 추가 운영은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만 가능하고 정신병원은 제외된다.

NoteBase

문 17. <보기>에서 설명하는 예산제도는?

<보기>
미국의 Pyhrr에 의해 창안되어 1969년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카터 대통령에 의해 1977년부터 미연방정부에 도입하게 되었으나 레이건 행정부 때 폐기되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이나 과거의 관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점증주의적 예산편성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조직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① 계획 예산제도
② 영기준 예산제도
③ 품목별 예산제도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영기준 예산제도의 핵심 특징과 다른 예산제도와의 구별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정사실로 두지 않고 모든 사업을 영점에서 다시 심사하는 제도이다.
계획 예산제도는 장기목표와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제도이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인건비, 물건비 같은 지출 항목별 통제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 단위원가, 산출 등 성과 정보를 예산과 연결해 능률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계획 예산제도'이다. 계획 예산제도는 장기계획과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자원배분을 합리화하는 방식이지, 과거 관행을 전면 배제하고 모든 사업을 영점에서 다시 정당화하는 제도는 아니다.
② O: 보기의 'Pyhrr 창안', '1969년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도입', '1977년 카터 행정부의 연방정부 도입', '과거 관행을 고려하지 않음', '조직구성원 참여 유도'는 모두 영기준 예산제도의 설명에 해당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인건비나 물건비 같은 지출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해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올바르게는 과거 사업을 당연한 전제로 두지 않고 전부 재검토하는 제도가 영기준 예산제도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산출과 단위원가를 기준으로 능률을 따지는 데 초점이 있다. 올바르게는 모든 사업의 계속 필요성을 매년 영점에서 입증하게 하는 제도가 영기준 예산제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영기준 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모두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므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결정어는 '과거의 관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과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함'이며, 이 표현은 영기준 예산제도를 바로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예산제도 문제에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심사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영기준 예산제도로 판단한다. 장기계획과 프로그램 연계는 계획 예산제도, 지출 항목별 통제는 품목별 예산제도, 업무성과와 단위원가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영기준은 '제로에서 다시 심사', 계획 예산은 '계획과 프로그램', 품목별은 '항목 통제', 성과주의는 '성과와 능률'로 구분된다.

NoteBase

문 18.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생주의 원칙

② 급여우선의 원칙

③ 사전예방의 원칙

④ 보험료 부담의 재산·소득비례 원칙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원칙 중 발생주의, 급여우선,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와 예방 개념을 구별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발생주의는 질병·부상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급여가 이루어지는 원리이다.
급여우선의 원칙은 의료 필요가 생기면 우선 급여를 제공하고 그 재원은 보험료로 공동 부담하는 성격을 말한다.
보험료 부담의 재산·소득비례 원칙은 보험료를 부담능력에 맞추어 차등 부담한다는 뜻이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뜻인데, 이는 건강보험의 대표적 기본 원칙으로 보는 항목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발생주의의 원칙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출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② O
급여우선의 원칙에 해당한다. 가입자가 의료 필요 상태에 놓이면 우선 급여를 받고, 비용은 사후에 보험료 재원으로 분담하는 구조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건강보험이 건강검진 등 예방적 기능을 일부 수행하기는 하지만, 제도의 기본 특성을 설명하는 대표 원칙은 발생주의, 급여우선,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이다.
올바르게는 건강보험은 예방 중심 제도라기보다 보험사고 발생 시 급여를 제공하는 보장제도라고 정리한다.

④ O
보험료 부담의 재산·소득비례 원칙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은 정액 균등부담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성격을 가진다.

오답 포인트

③은 건강검진이나 예방사업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쉽게 끌리는 선지이다. 그러나 예방 기능이 있다는 것과 제도의 기본 원칙이 사전예방이라는 것은 다르다. 이 문항은 건강보험의 부수 기능과 제도 원칙을 의도적으로 섞어 놓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건강보험 원칙 문제는 먼저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 급여가 이루어지는지, 보험료가 부담능력에 비례하는지, 의료 필요 시 급여가 우선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예방사업의 존재만으로 사전예방 원칙이라고 단정하면 오답이 된다.

암기 포인트

건강보험은 사전예방 중심이 아니라 발생주의·급여우선·부담능력비례 부담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입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②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65세 미만자이다.

③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된다.

④ 수혜대상이 된 자는 일부 급여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입자, 장기요양인정 대상, 보험료 징수 방식, 본인부담 구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대상을 혼동하지 않는 데 있다.

용어 풀이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 가입 주체이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실제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다만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이다.
따라서 가입자 범위와 급여대상 범위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입자를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한 것이 틀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므로 65세 이상 노인만을 뜻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가입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 올바른 표현: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급여의 주된 대상이다.

② O
- 이 문장은 장기요양인정의 실질 대상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맞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O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 체계와 분리되어 별도로 걷히는 것은 아니다.

④ O
- 수급자가 되더라도 급여비용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있어 수급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가입자와 수급대상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①은 보험 가입 주체를 급여대상 연령으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므로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쉽게 속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는 먼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인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급여를 받는 사람인지부터 나누어 본다. 그다음 대상 요건, 보험료 징수 방식, 본인부담 유무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가입자는 건강보험과 같고,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으로 정해진다.

NoteBase

문 20. <보기>에 해당하는 진료비 지불방법은?

<보기>
•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안정된 진료행위가 가능하다.
• 의료인의 과잉진료로 환자의 진료비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진료비 청구, 심사와 같은 복잡한 행정관리비용이 증가한다.
• 예방사업이 소홀해질 수 있다.

① 포괄수가제(Case-payment)
② 총액계약제(Global Budget)
③ 인두제(Capitation)
④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표적인 진료비 지불방법의 유인 구조를 비교하여 행위별수가제의 특징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포괄수가제는 질병군이나 입원 건당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총액계약제는 일정 기간 전체 진료비 총액 한도를 먼저 정해 그 범위 안에서 보상하는 방식이다.
인두제는 등록 인구 수를 기준으로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방과 지속관리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다.
행위별수가제는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의료인의 자율성이 크지만 과잉진료와 행정비용 증가 유인이 생기기 쉽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포괄수가제는 건당 정액 보상 방식이므로 의료인의 행위량이 늘어날수록 수입이 비례해 커지는 구조가 아니다. 보기의 핵심인 과잉진료, 청구·심사 증가, 예방 소홀은 포괄수가제보다 행위별수가제의 특징에 가깝다. 틀린 표현은 포괄수가제이다. 올바르게는 행위별수가제이다.
2번 X: 총액계약제는 전체 의료비 총액을 통제하는 방식이므로 진료비 부담 증가를 억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보기처럼 개별 행위마다 보상하여 과잉진료와 복잡한 청구를 유발하는 구조와 다르다. 틀린 표현은 총액계약제이다. 올바르게는 행위별수가제이다.
3번 X: 인두제는 등록 인원 기준 선불 보상 방식이어서 예방사업과 건강관리 유인을 높일 수 있다. 보기의 마지막 문장인 예방사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설명은 인두제와 반대 방향이다. 틀린 표현은 인두제이다. 올바르게는 행위별수가제이다.
4번 O: 행위별수가제는 진료행위별로 수가를 지급하므로 의료인의 자율성이 크고 진료량이 늘수록 보상이 증가한다. 그 결과 과잉진료 가능성, 환자 진료비 부담 증가, 청구·심사에 따른 행정관리비용 증가, 예방보다 치료 중심 운영이 나타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를 모두 민간의료에서 쓰이는 방식으로만 외우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지급 단위가 행위인지, 사람 수인지, 건당 정액인지, 총액 한도인지의 차이를 묻는다. 특히 예방사업 소홀은 행위별수가제, 예방 유인은 인두제로 대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나 보기에서 과잉진료, 진료량 증가 보상, 청구·심사 복잡성, 치료 중심 유인이 보이면 행위별수가제를 먼저 떠올린다. 반대로 등록 인구 기준 선불과 예방 유인이 보이면 인두제, 건당 정액이면 포괄수가제, 총지출 상한이면 총액계약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행위별수가제는 많이 할수록 많이 받고, 인두제는 사람 수대로 받고, 포괄수가제는 건당 받고, 총액계약제는 총액을 묶는다.

NoteBase